

# 청소년기 자아개념의 학년별, 성별 차이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분석

김동호\*, 라종민\*\*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한 자아개념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자아개념(사회·가족·신체·학업자아개념)의 성별 차이와 자아개념(사회·가족·신체·학업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개념 척도의 구성타당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학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체적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개념 하위요소별로 보면, 사회자아개념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체자아개념은 모든 학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학업자아개념은 성별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자아개념 하위요소가 학업성취에 대한 자아개념의 효과는 학년마다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자아개념만이 모든 학년에서 학업성취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구성타당도, 자아개념, 학업성취

# The Influence of Self-Concept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Adolescents

Kim, Dong-ho\*, Ra, Jongmin\*\*

## <Abstract>

The current study mainly aim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self-concept on the academic achievement as well as any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in the 7th, 9th, 12th grades. The results from the study revealed that male students were at a higher levels of self-conception than female students across all three grades. More specifically,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existed in their physical self-concept. In addit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showed that influences of sub-domains of self-concept on academic achievements differed across the three grades.

[ **Keywords** ] Academic achievement, Construct validity, self-concept

---

\*김동호 (E-mail : kdh7661@naver.com)

현직 : 국민대학교 박사과정

\*\*라종민 (교신저자, E-mail : rems2002@gmail.com)

현직 : 국민대학교 조교수

Assistant Professor

Research Evaluation Measurement and Statistics(REMS)

Dept. of Education in Kookmin University

논문접수일 : 2014년 12월 31일, 논문수정일 : 2015년 8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5년 8월 20일

## I. 서론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는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 학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원, 교육정책 입안자 등 수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자 주요 연구과제이다. 학업성취는 학생의 학업에 대한 능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향후 대학입학이나 직업선택 및 사회적 성취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해 과거 연구에서는 인지적 특성인 학생의 지능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으나, 이후 계속된 연구에서 인지적요인 못지않게 정의적요인도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다(Bloom 1976). 블룸(Bloom 1976)은 인지적요인, 정의적요인, 수업의 질을 학업성취의 결정요인으로 보았으며 인지적 요인과 더불어 정의적 요인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정의적요인 중의 하나인 자아개념은 한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로 정의할 수 있다(이건인·이해춘 2008). 샤벨슨과 볼루스(Shavelson and Bolus 1982)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의 자아개념은 그들이 접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형성되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형성과정에서 가족 구성원, 학교에서의 교사나 친구, 주변에서 마주치는 의미 있는 타인들의 언어적·비언어적 평가, 과업수행에서의 성공과 실패 등은 자기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아개념은 학생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긍정적으로 동기가 유발된

다(Einar 1997). 긍정적 자아개념은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향후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학업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김순혜 1997; Coopersmith 1967; Piers & Harris 1969). 김순혜(1997)는 자아개념을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보았으며, 특히 학문적 자아개념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하지만 자아개념과 학업성취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지금까지 일관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정적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경화·고진영 2003; Coopersmith 1967; Piers & Harris 1969), 학업성취에 자아개념 하위 요소 중 일부는 관계가 없거나 적다는 연구(Bryne and Worth Gavin 1996; 안도화·김유리 2004; 최관수 1989), 그리고 학업성취에 자아개념 일부요소가 부적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순혜 1997; 이명숙·이규민 2009) 등 다양하였다. 이경화·고진영(2003)은 학령기 아동의 자아개념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연구에서 일반교과자아개념은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했고, 안도화·김유리(2014)는 자아개념은 학업성취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이명숙·이규민(2009)은 전문계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자아개념은 학업성취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김순혜(1997)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또래 자아개념과 정의적 자아개념은 학업성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자아개념의 성별 차이 연구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와일리(Wylie 1979)는 일반적인 자아개념은 남녀 간의 차이가 없다고 하였고, 이경화·고진영(2003)도 대부분의 자아개념 하위 요소인 일반·신체외모·일반교과·수학·부모관계·친구관계 자아개념은 남녀 간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반면 일반자아개념이나 신체자아개념이 남자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고(홍세희·박언아 외 2006; 이진화·전경숙 1995), 능력·사회·정서·신체·학문·학급 등 대부분의 자아개념 하위 요인이 여자가 남자보다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신은영·김누리 2004).

이러한 자아개념에 대한 연구결과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해당 연구가 특정 지역이나 학교급, 학생에 한정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자아개념과 자아개념 하위 요소의 성별차이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음에도 서로 다른 결과로 인해 혼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지역,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성 있는 표집을 바탕으로 여러 학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자아개념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한국교육중단연구를 위해 수집한 전국단위 표집자료를 바탕으로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한 후 첫 단계인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입학 준비하는 중학교 3학년, 대학교 입학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개념의 성별 차이,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다음과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한 자아개념 검사 도구(한국교육개발원 2006)의 구성타당도는 타당한가?

둘째, 학년(중1·중3·고3)에 따라 성별 간 자아개념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학년(중1·중3·고3)에 따라 성별 간 자아개념의 하위요인 간에는 차이가 있는가?

넷째, 학년(중1·중3·고3)에 따라 성별과 자아개념 하위요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자아개념

자아개념은 자신의 신체적, 사회적, 학업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적 평가를 말한다(Marsh 1986). 자신이 운동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신체자아개념이 높은 것이고, 스스로를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사회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사회자아개념이 높은 것이며, 자신의 지적 능력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면 학업자아개념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자아개념은 학생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분화되고 구체화된다(Woolfolk 1995; 이성진 외 2009에서 재인용). 어렸을 때는 자신을 추상적이고 전체적으로 평가하지만 청소년기가 되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연구자들은 자아개념의 다차원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샤베슨과 후버너(Shavelson

and Hubner et.al 1976)등은 다차원적이고 계층적인 자아개념 모델을 개발했다. 샤벨슨(Shavelson)은 일반적 자아개념을 정점으로 하위분야에 학문적 자아개념, 사회적 자아개념, 정서적 자아개념, 신체 자아개념이 있는 계층적인 구조를 제안하였다(Einar 1997). 또한, 송인섭(1988)은 자아개념의 구조는 다면적이고 위계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3차원 위계적 자아개념 구조를 제안했다. 그는 일반자아개념을 최상위에 두고 그 아래를 학문자아개념, 중요타인 자아개념, 정의자아개념을 나누고 다시 그 아래에 세부 하위자아개념을 두는 다층적인 자아개념 구조를 제안했다.

이후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06년 한국교육중단 연구를 위해 4가지 하위요인 자아개념(사회·가족·신체·학업자아개념)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개최하는 한국교육중단연구 학술대회를 통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2006년에는 자아개념과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행동 관련성 연구(박종효)가 발표되었고, 2008년에는 학업자아개념을 매개로 부모교육기대, 학업관리, 시험스트레스 관계에 대한 중단분석(김중백·김준엽), 학교만족도에 대한 학급풍토의 영향(김경식·이현철) 등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최근에는 자아개념, 자기효능감과, 진로관련 변인들의 영향요인분석(신효정·최현주 2012), 또래관계 자아개념 변화가 생애목표인식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이현주·권희경 외 2012), 지각된 부모양육특성이 목표를 매개로 학업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신중호·진성조 외 2012) 등의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발표

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학술대회 외에도 개인적인 연구에도 한국교육개발원 자아개념 검사 도구 및 자료가 활용되고 있다. 홍성훈과 김희수(2007)는 청소년의 비행행동과 자아개념 간의 관련성 연구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 자아개념 척도를 사용하였고, 송수지·김정민·남궁지영(2012)은 1~6차년도 자아개념 측정자료를 활용하여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개념 발달양상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김현옥(2012)은 2·3·6차년도 학업자아개념 5개 문항을 사용하여 부모의 정서적 교육지원과 학업자아개념의 자기회귀 교차지연효과를 확인하는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많은 연구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자아개념 검사 도구의 하위요소 및 검사 문항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박종효(2006)와 홍성훈과 김희수(2007)는 한국교육개발원이 2006년 측정한 사회자아개념 8개 문항, 가족자아개념 9개 문항, 신체자아개념 6개 문항, 학업자아개념 7개 문항을 사용하였고, 김경식과 이현철(2008)은 신체자아개념 4개 문항을, 신중호 외(2012)는 학업자아개념 3개 문항을, 그 외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자아개념 4가지 하위요소별로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한국교육개발원 자아개념 검사 도구를 활용한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개념 검사 도구에 대한 보다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 2. 자아개념과 학업성취

많은 선행연구들(최관수 1989; 송인섭 2000; 이경화·고진영 2003; Brookerover and Paterson at al. 1964; Coopersmith 1967; Piers & Harris 1969)은 일반적으로 자아개념이 높은 학생들은 높은 학업성취를, 자아개념이 낮은 학생들은 낮은 학업성취를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Brookover 외 (1964)는 지능지수의 영향을 제거한 후 자아개념과 교과 성적 평균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했다. 또한, 최관수(1989), 송인섭(2000)은 학업성취와 자아개념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언급했고, 이경화·고진영(2003)은 학령기 아동의 자아개념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연구에서 일반교과자아개념은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또한 특정 과목에 대한 자아개념과 학업성취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거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완익·김효남 2013; 이경화·고진영 2003). 일반적으로 특정 과목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게 되면 그 과목을 좋아하게 되고, 그 결과 학업성적이 높아지게 된다. 심완익·김효남(2013)은 과학 학문자아개념은 과학교과의 인지적 학업성취, 정의적 학업성취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하였고, 이경화·고진영(2003)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반교과자아개념은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이와 더불어, 자아개념의 하위요소와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헨드포드와 해티(Hansford and Hattie1982)는 능력자아개념과 학업성취가 정적 상관관계( $r = .42$ )를 보인다고 했으며, 송인섭(2001)은 언어자아개념이 언어학업성취에, 수학자아개념이 수학학업성취에 미치는 경로계수가

긍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자아개념 하위요소 중 일부는 학업성취와 관계가 없거나 부정적이라는 연구도 있다(이명숙·이규민 2009; 안도희·김유리 2014). 이명숙·이규민(2009)은 전문계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 자아개념 등의 관계연구에서 성취자아개념·능력자아개념·가족자아개념·학급자아개념은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신체자아개념·일반자아개념은 학업성취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자아개념·정서자아개념은 학업성취에 영향이 없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안도희·김유리(2014)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자기주도학습, 자아개념, 학업성취 간의 관계연구에서 자아개념은 학업성취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김순혜(1997)는 고등학생의 자아개념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연구에서 학업성취에 성취자아개념이 상대적으로 높은 예언을 가지나 또래 자아개념과 정의적 자아개념은 학업성취를 설명하는데 부적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번과 워스(Byrne and Worth Gavin et al.1996)등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자아개념과 신체적 자아개념은 학업성취와는 관련이 없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볼 수 있는데 그 예로 사회성이 뛰어난 학생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지만 반드시 학업성취가 높은 것은 아니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도 외모에 치중하는 등의 이유로 학업을 소홀히 하여 학업성취가 높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아개념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는 자아개념이 높은 것이 일반적으로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하위요인별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3.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과 학업 성취

와일리(Wylie 1979)는 일반적인 자아개념은 성별 간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면서, 자아개념 하위요인 점수가 일반적인 자아개념으로 합산되면서 하위요인 간의 성별 차이가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자아개념 하위요인 간에는 성차가 있을 수 있음을 제시했다. 두섹과 플라허티(Dusek and Flaherty 1981)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 남학생들은 신체적 자아개념이 여학생들보다 높았으며, 여학생들은 읽기 자아개념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했다(최선영·류영숙 1998에서 재인용). 마쉬(Marsh 1989)의 연구에서도 청소년기에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남학생은 신체자아개념과 수학자아개념이 높고, 여학생은 어휘와 읽기 자아개념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했다(이명애 2006에서 재인용).

이경화와 고진영(2003)은 서울 소재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신체능력자아개념, 읽기능력자아개념은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나 신체적 외모 자아개념, 일반교과목 자아개념, 일반적 자아개념, 수학자아개념, 부모관계 자아개념, 친구관계 자아개념은 유의한 차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심완익과 김효남(2013)은 서울소재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초등 과학에서 인지적·정의적 학업성취와 자아개념과의 관계에서 초등학교

과학교과의 정의적 학업성취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를 보고했고, 홍세희 등(2006)은 한국청소년패널 자료를 이용한 중·고등학생의 자아개념 변화 추정연구에서 자아개념 수준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 남자는 신체적·운동적 영역, 성취영역에서 높고, 여자는 정서, 대인관계 영역에서 높거나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이진화·전경숙(1995)도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신체적 자아개념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신은영·김누리(2004)는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개념의 성별 차이를 연구에서 대부분의 자아개념 하위요인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했는데, 하위요인 별로는 학급자아개념, 능력자아개념, 사회자아개념, 정서자아개념, 신체자아개념, 학문자아개념, 정서적 자아개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일반자아개념, 성취자아개념, 가족자아개념, 중요타인 자아개념은 남녀 간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학문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남녀 간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브루코버와 페터슨(Brookover and Paterson et al. 1964)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결과를 보고한 반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Song & Hattie 1985).

지금까지 자아개념에 대한 성별 차이 연구에서는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해당 연구가 특정 지역이나 학교급, 학생에 한정하여 이루어졌

기 때문이다. 자아개념과 자아개념 하위요소의 성별차이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유용한 자료이므로 조금 더 대표성 있는 표집자료를 이용하여 여러 학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성별 자아개념 차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표 1> 시도별 표본 학교 수와 학생 수

구분	학교 수			학생 수		
	모집단	표집	비율	모집단	표집	비율
서울	362	26	7.18	130,012	1,237	0.95
부산	166	10	6.02	50,648	523	1.03
대구	118	7	5.93	39,026	350	0.90
인천	114	8	7.02	42,020	401	0.95
광주	74	5	6.76	23,871	261	1.09
대전	75	5	6.67	22,747	256	1.13
울산	51	3	5.88	18,808	151	0.80
경기	472	34	7.20	165,398	1,659	1.00
강원	160	5	3.13	20,558	160	0.78
충북	123	7	5.69	21,570	278	1.29
충남	187	7	3.74	26,126	243	0.93
전북	201	5	2.49	26,659	229	0.86
전남	247	7	2.83	26,173	271	1.04
경북	282	9	3.19	34,966	372	1.06
경남	255	10	3.92	46,745	443	0.95
제주	42	2	4.76	8,587	74	0.86
계	2,929	150		703,914	6,908	

본 연구는 국가수준에서 학생 개인의 성장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하여 나타난 현상과 문제를 수집·분석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는 먼저 전국을 도시규모에 따라 층(stratum)으로 구분하고, 각 층마다 표본학교를 추출하며, 다시 표본학교에서 표본학생을 추출하는 층화군집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05). 각 시도별로 추출된 표본 학교 수와 학생 수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중학교 1학년 6,908명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수집한 자료 중 제1차 중학교 1학년, 제3차 중학교 3학년, 제6차 고등학교 3학년이다. <표 2>는 결측값을 제외한 한국교육종단연구에 참여한 학생 분포를 성별, 학년별로 보여주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사이에는 참여 학생 수가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사이에는 남학생이 약 41%(n=1,323), 여학생이 약 41%(n=1,189), 학년 전체적으로는 약 41%(n=2,512)의 학생 수가 감소했다.

<표 2> 연도별 분석대상 분포

구분	2005년 (중1)	2007년 (중3)	2010 (고3)	계
남학생	3,173	3,166	1,843	8,182
여학생	2,924	2,895	1,706	7,525
계	6,097	6,061	3,549	15,707

#### 2. 자아개념 척도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개념 척도는 현주·김양분(2005)등이 ‘KEDI 종합검사 도구 개발 연구’에서 개발한 예비문항을 바탕으로 서울·경기 소재 중학교(6개교) 및 고등학교(6개교) 학생 374명 설문결과



를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만든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3>은 4개의 자아개념 하위요소(사회·가족·신체·학업자아개념) 척도가 학년별로 서로 다른 문항(중1 30문항, 중3·고1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한국교육개발원 2006). 각 하위요소별 문항들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으로 구성된 Likert 방식이며 높으면 자아개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자아개념 하위요소별 설문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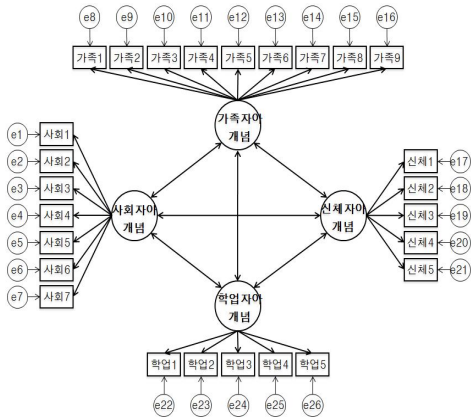
구분	문항
사회	1.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2.친구들은 나와 함께 놀기를 좋아한다.
자아개념	3.나는 단체생활을 잘 한다.
	4.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
가족	5.내 친구들은 나를 믿는다.
	6.나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7.나는 행복한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자아개념	8.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9. 족들은 나의 고민을 잘 도와준다.
신체	10.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신다.
	11.나는 나의 얼굴 생김새에 만족한다.
	12.나는 나의 몸매에 만족한다.
자아개념	13.나는 운동 신경이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14.나는 호감을 주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학문	15.나의 용모는 매력적인 편이다.
	16.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공부를 한다.
	17.나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편이다.
자아개념	18.나는 수업시간에 발표하거나 호명하는 것을 좋아한다.
	19.나는 학교 가는 것이 즐겁다.
	20.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에 임한다.

\* 중학교 1학년은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학업성취도 변수 중 중학교 1학년과 3학년 자료는 학교에서 실시한 국어, 영어, 수학 교과목에 대한 성취도 검사결과와 척도점수를 합하여 평균을 산출하였고, 고등학교 3학년 자료는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 영역 중 언어, 영어, 수학 성적의 척도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을 산출하여 학업성취도 변수를 생성하였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이 위계적이고 다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종단연구를 위해 개발한 자아개념 검사 도구의 구성타당도와 신뢰도를 먼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각 학년별 설문에 응답한 전체 학생에서 자아개념 설문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학업성취 평가 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학생을 제외하였다. 둘째, 각 학년별 설문에서 이상치를 확인하기 위해 normtest(DeCarlo 1997)를 실시하여 이상치가 나온 학생의 응답은 제거하였다. 셋째,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호른(Horn1965)의 평행분석(Parallel analysis: PA), 레돈(Reddon 1985)과 벨리서(Velicer 1976)의 최소평균편상관분석(Minimum Average Partial Analysis: MAP), SPSS의 탐색적 요인분석의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과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사용하여 자아개념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최초 사용한 4개의 요인으로 묶이는지를 확인하였다. 넷째, 요인분석결과를 바탕으로 AMOS18을 이용하여 학년별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는데,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마지막으로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자아개념 하위 요소별로 문항들의 내적 일치는 Cronbach  $\alpha$ 계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1] 중학교 1학년 자아개념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학업성취는 중학교 1, 3학년은 학교에서 시행한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성취도 (최도 점수)를 사용하였고, 고등학교 3학년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언어, 수학, 외국어의 표준점수를 활용하였다. 성별에 따라 자아개념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학년에 따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개념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 보다 정확한 의미해석과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고려하여 모든 변수에 대하여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실시하였다(Afshartous & Preston 2011).

## IV. 연구결과

### 1. 구성타당도

#### 가. 탐색적 요인분석

##### 1) 학년별 요인분석

본 연구는 평행분석, 최소평균편상관분

석, 고유값을 사용하여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표 4>는 중학교 1학년의 경우 평행분석, 최소평균편상관분석, 고유값으로 선정된 요인의 수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다. 평행분석결과 4개의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소평균편상관분석과 고유값은 5개의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통성이 낮거나 요인적재량이 적은 4개 문항(학업5, 학업6, 신체1, 사회8)을 제외한 결과 최소평균편상관분석과 고유값도 역시 4개 하위요인을 보여주고 있다. 26개 문항의 공통성(communality)은 .42~.72이었고, 요인적재량은 .60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3>은 또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당초 계획한 4개의 하위요인으로 묶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4개의 하위요인에 속한 문항은 고등학교 3학년 전체 신체자아개념 13번 문항만 공통성이 .3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고 나머지 문항은 .51~.79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Henson & Roberts 2006).

<표 4> 학년별 요인분석

학년	요인수		
	평행 분석	최소평균 편상관분석	고유값
중학교 1학년	4	5 → 4*	5 → 4*
중학교 3학년	4	4	4
고등학교 3학년	4	4	4

\*낮은 공통성과 요인부하량을 지닌 4개 문항(학업5, 학업6, 신체1, 사회8)을 제외한 결과

##### 2) 성별 요인분석

본 연구는 자아개념 요인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중학교 1학

년,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표 5>는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최초 남학생과 여학생의 요인수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공통성과 요인부하량이 적은 4개 문항(학업5, 학업6, 신체1, 사회8)을 제외한 결과 4개 하위요인으로 묶여졌다. 최종 선정된 26개 문항의 공통성(communality)은 .42~.71이었고, 요인 적재량은 .58이상으로 나와 양호한 수준이었다. <표 5>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요인의 형태가 일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5>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의 경우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20문항이 4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선정된 20문항의 공통성(communality)는 이정숙과 이선영(2013)이 제시한 .4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추후 연구에 포함 하였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의 경우 신체자아개념 13번 문항의 공통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의 경우 .29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의 경우 .2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통성은 이정숙과 이선영(2013)년 제시한 기준(.40)보다 낮아 추후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13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19문항은 공통성과 요인적재량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 값보다 높아 추후 연구에 사용하였다.

<표 5> 성별 요인분석 결과

학년	평행분석	요인수	
		최소평균 편상관분석	고유값
중1	4(26문항)	5 → 4*(26)	5 → 4*(26)
	4(26문항)	6 → 4*(26)	6 → 4*(26)
중3	4(20문항)	4(20)	4(20)
	4(19문항)	4(19)	4(19)
고3	4(20문항)	4(20)	4(20)
	4(19문항)	4(19)	4(19)

\*낮은 공통성과 요인적재량을 지닌 4개 문항(학업5, 학업6, 신체1, 사회8)을 제외한 결과

## 나. 확인적 요인분석

### 1) 학년별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들의 자아개념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4요인, 26개 문항)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표 6>은 학년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chi^2$  검정 결과 가설이 기각되어 모형이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chi^2$  검정은 영가설이 너무 엄격하고 표본크기에 민감하다는 문제(홍세희 2000)가 있어 다른 척도의 적합도로 판단하였다.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RMR, GFI, CFI의 값이 기준 값을 상회하고 있고, RMSEA도 0.08이하이면 적당한 합치로 보기 때문에 모형은 수용할 수 있는 값이 나왔다(손진희·김안국 2006; Hu & Bentler 1990). 따라서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자아개념 측정문항은 26개 문항, 4개 하위요인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20개 문항, 4개 하위요인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2. 신뢰도

<표 6> 학년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기준값	학년		
		중1	중3	고3
$\chi^2/p$	$p>.05$	8632.63 /00	6616.44 /00	3216.22 /00
$\chi^2/d.f$	2이하	29.46	40.34	19.11
RMR	.05이하	.05*	.05*	.04*
GFI	.90이상	.89	.89	.91*
AGFI	.90이상	.87	.86	.89
CFI	.90이상	.90*	.90*	.92*
NFI	.90이상	.90*	.90*	.92*
RMSEA	.05이하 : 좋다	.07*	.08*	.07*
A	.05~.10 : 수용가능	.07*	.08*	.07*

\* 적합

### 2) 성별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개념 척도의 적합성을 검증한 후 각 학년별 성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은 성별 확인적 요인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학년에 상관없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chi^2$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제시된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RMR, GFI, CFI, NFI 값이 기준 값을 상회하고 있고, RMSEA도 모형을 수용할 수 있는 값이 나와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성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기준값	학년					
		중1		중3		고3	
$\chi^2/p$	$p>.05$	415	4220.	385	303	1906.	147
RMR	.05이하	1.47	.88	7.59	9.89	.63	.740
GFI	.90이상	.90*	.89	.90*	.89	.91*	.91*
AGFI	.90이상	.88	.86	.86	.86	.88	.88
CFI	.90이상	.90*	.90*	.90*	.91*	.92*	.92*
NFI	.90이상	.90*	.90*	.90*	.90*	.91*	.91*
RMSEA	.05이하 : 좋다	.07*	.07*	.08*	.08*	.08*	.07*
A	.05~.10 : 수용가능	.07*	.07*	.08*	.08*	.08*	.07*

\* 적합

<표 8>은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합치도를 구체적인 계수로 반영해 주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Cronbach's  $\alpha$ 가 .70이상이면 대체로 수용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하였다(이영준 1991; 최보가·전귀연 1993에서 재인용). 중학교 3학년 전체 및 남학생 신체자아개념의 신뢰도는 문항 13번을 제외하는 경우 신뢰도가 높아져 해당 문항을 삭제하였다. 고등학교 3학년 전체 및 남학생의 신체자아개념 신

<표 8> 학년별 내적신뢰도 검증 결과

구분	하위 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문항계수
중1	전체	사회	1,2,3,4,5,6,7	7.86	7
		가족	9,10,11,12,13,14,15,16,17	9.91	9
		신체	19,20,21,22,23	5.83	5
	남학생	사회	1,2,3,4,5,6,7	7.85	7
		가족	9,10,11,12,13,14,15,16,17	9.90	9
		신체	19,20,21,22,23	5.84	5
중3	전체	사회	1,2,3,4,5,6,7	7.86	7
		가족	9,10,11,12,13,14,15,16,17	9.92	9
		신체	19,20,21,22,23	5.82	5
	남학생	사회	1,2,3,4,5,6,7	7.86	7
		가족	9,10,11,12,13,14,15,16,17	9.92	9
		신체	19,20,21,22,23	5.82	5
고3	전체	사회	1,2,3,4,5	5.86	5
		가족	6,7,8,9,10	5.90	5
		신체	11,12,13,14,15	5.84	4
	남학생	사회	1,2,3,4,5	5.87	5
		가족	6,7,8,9,10	5.89	5
		신체	11,12,13,14,15	5.85	4
고3	전체	사회	1,2,3,4,5	5.86	5
		가족	6,7,8,9,10	5.90	5
		신체	11,12,14,15	4.85	4
	남학생	사회	1,2,3,4,5	5.83	5
		가족	6,7,8,9,10	5.90	5
		신체	11,12,14,15	4.81	3

뢰도는 문항 13번을 삭제하는 경우 신뢰도가 높아져 해당 문항을 삭제한 후 신뢰도를 다시 검사했는데 문항 12번을 삭제하는 경우 신뢰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고등학교 전체 및 남학생의 신체자아개념은 문항 12번, 13번을 삭제하여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문항 12번을 삭제하는 경우 신뢰도가 높아져 해당문항을 삭제하였다. 모든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가 .80이상으로 나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진다. 결과적으로 신뢰도 검증 결과 자아개념 분석을 위해서는 하위요인은 4가지로 하고, 문항은 중학교 1학년은 26개, 중학교 3학년은 19개, 고등학교 3학년은 18개 문항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였다.

### 3. 기술통계치

<표 9> 자아개념, 학업성취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수	중학교 1학년 (n=6,097)		중학교 3학년 (n=6,061)		고등학교 3학년 (n=6,097)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사회	3.80	0.64	3.89	0.65	3.92	0.63
가족	3.90	0.75	3.73	0.81	3.71	0.78
신체	2.85	0.83	2.95	0.85	3.21	0.80
학업	3.31	0.76	3.08	0.78	3.09	0.72
학업성취	300.81	51.77	512.06	53.97	99.12	17.10

<표 9>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의 자아개념(사회자아개념, 가족자아개념, 신체자아개념, 학업자아개념)과 학업성취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자아개념과 신체자아개념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가족자아개념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을 보

였으며 학업자아개념은 중학교 3학년이 되면 감소했다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학년별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

### 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자아개념은 남학생이 3.5점으로 여학생 3.44점보다 높았다. 평균차이가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 남녀 집단별 독립표본 t-검정을 했는데 남녀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개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학교 1학년에서 자아개념 하위요소가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10>. 사회자아개념은 여학생 3.86점으로 남학생 3.76점에 비해 0.1점이 높고, 가족자아개념은 남학생이 3.92점으로 여학생 3.89점에 비해 0.03점이 높았으며, 신체자아개념은 남학생이 2.99점으로 여학생 2.71점에 비해 0.28점이 높았고, 학업자아개념은 남학생이 3.35점으로 여학생 3.29점에 비해 0.06점이 높았다.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 남녀 집단별 독립표본 t-검증을 해야 하는데, 독립표본 t-검정을 위해 먼저 남녀집단의 동질성 검증이 필요하여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실시하였다. 등분산 검정 결과 사회자아개념, 신체자아개념은 남녀 간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가족자아개념( $F=7.05$ ,  $p<.05$ ), 학업자아개념( $F=3.91$ ,  $p<.05$ )은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았다. 등분산이 가정

된 t-검증결과를 활용하여 본 남녀집단별 차이에서 사회·신체자아개념에서 남녀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1학년은 신체·학업자아개념은 남학생이, 사회자아개념은 여학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t-검증을 활용하여 본 남학생과 여학생의 가족자아개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t(6001.33)=1.44, p=.14) 학업자아개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6066.586)=2.99 p<.05).

<표 10> 중학교 1학년 남녀 자아개념 차이

변수	남학생 (n=3,173)		여학생 (n=2,924)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아개념	3.50	0.54	3.44	0.54	4.79**
사회	3.76	0.65	3.86	0.63	-6.29**
가족	3.92	0.74	3.89	0.77	1.44
신체	2.99	0.82	2.71	0.82	13.44**
학업	3.35	0.74	3.29	0.77	2.99**

\*p<.05 \*\*p<.01

### 나. 중학교 3학년

<표 11>은 중학교 3학년 남녀학생들의 자아개념과 자아개념 하위영역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자아개념은 남학생이 3.44점으로 여학생 3.40점보다 높았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결과 가족자아개념과 신체자아개념은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사회자아개념(F=31.537, p<.05), 학업자아개념(F=4.215, p<.05)은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았다. 등분산이 가정된 t-검정결과를 활용하여 확인한 결과 가족자아개념은 남녀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 신체자아개념은 남녀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등분

산이 가정되지 않은 t-검정결과를 활용하여 확인한 결과 사회자아개념(t(6058.76)=-6.127, p<.05)은 남녀 간의 차이가 유의하였고, 학업자아개념(t(6051.83)=-.065(p<.05) 남녀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자아개념은 여자가 신체자아개념은 남자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중학교 3학년 남녀 자아개념 차이

변수	남학생 (n=3,166)		여학생 (n=2,895)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아개념	3.44	0.56	3.40	0.52	3.53**
사회	3.85	0.67	3.95	0.61	-6.12**
가족	3.74	0.80	3.74	0.82	-0.08
신체	3.08	0.85	2.82	0.83	11.80**
학업	3.09	0.80	3.09	0.76	-0.06

\*p<.05 \*\*p<.01

중학교 3학년에서 자아개념 하위요소가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자아개념은 여학생 3.95점으로 남학생 3.85점에 비해 0.1점이 높고, 신체자아개념은 남학생이 3.08점으로 여학생 2.82점보다 0.26점이 높았으며, 가족자아개념과 학업자아개념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사회·신체자아개념에서 남녀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자아개념은 남학생이 3.51점으로 여학생 3.47점보다 높았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결과 가족자아개념은 등분산이 가정되었고, 사회자아개념(F=39.654, p<.05), 신체자아개념(F=5.805, p<.05), 학업자아개념(F=4.439, p<.05)은 등

분산이 가정되지 않았다. 등분산이 가정된 t-검정결과를 활용하여 확인한 결과 가족자아개념은 남녀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t-검정결과를 활용하여 확인한 결과 사회자아개념( $t(3539.63)=-.464, p=.64$ ), 학업자아개념( $t(3546.68)=-.251, p=.80$ )은 유의하지 않았고, 신체자아개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3545.331)=5.619, p<.05$ ).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1학년은 신체자아개념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고등학교 3학년 남녀 자아개념 차이

변수	남학생 (n=3,173)		여학생 (n=2,924)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아개념	3.51	0.54	3.47	0.50	2.07*
사회	3.93	0.68	3.92	0.58	0.46
가족	3.71	0.79	3.72	0.77	-0.26
신체	3.29	0.81	3.14	0.77	5.61**
학업	3.09	0.74	3.09	0.69	-0.25

\* $p<.05$  \*\* $p<.01$

## 5. 성별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 가. 중학교 1학년

자아개념 하위요소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는데, 사회자아개념과 가족자아개념 간에서  $r=.331(p<.001)$ , 신체자아개념과는  $r=.372(p<.001)$ , 학업자아개념과는  $r=.376(p<.001)$ 의 상관이 있고, 가족자아개념과 신체자아개념 간에는  $r=.296(p<.001)$ , 학업자아개념과는  $r=.412(p<.001)$ 의 상관이 있으며, 신체자아개념과 학업자아개념 간에는  $r=.422(p<.001)$ 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표 13>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의 학업성취를 종속변수로 하고 자아개념과 더미코딩을 한 성별변수(남학생=1, 여학생=0)를 독립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모형의 수정된 결정계수( $R^2$ )의 설명력은 19% 전후를 나타내고 있어 모형의 설명력이 다소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결과에 의하면 가족자아개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성별, 가족자아개념, 신체자아개념, 학업자아개념은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자아개념 변수 중 사회자아개념( $t=-3.15, p<.01$ )과 신체자아개념( $t=-12.42, p<.01$ )은 학업성취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자아개념( $t=35.07, p<.01$ )은 학업성취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자아개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높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업성취가 11.03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3> 중학교 1학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회귀계수	t값
학업성취	(상수)	-5.56 (0.87)		
	성별	11.03 (1.22)	.10	8.99**
	사회	-3.33 (1.06)	-.04	-3.15**
	가족	-1.47(0.88)	-.02	-1.66
	신체	-10.32 (0.83)	-.16	-12.42**
	학업	32.61 (0.93)	.48	35.07**

\* $p<.05$  \*\* $p<.01$

### 나. 중학교 3학년

자아개념 하위요소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는데, 사회자아개념과 가족자아개념 간

에서  $r=.328(p<.001)$ , 신체자아개념과는  $r=.274(p<.001)$ , 학업자아개념과는  $r=.304(p<.001)$ 의 상관이 있고, 가족자아개념과 신체자아개념 간에는  $r=.303(p<.001)$ , 학업자아개념과는  $r=.358(p<.001)$ 의 상관이 있으며, 신체자아개념과 학업자아개념 간에는  $r=.426(p<.001)$ 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의 학업성취를 종속변수로 하고 자아개념과 더미코딩을 한 성별변수(남학생=1, 여학생=0)를 독립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모형의 수정된 결정계수( $R^2$ )의 설명력은 10% 전후를 나타내고 있어 모형의 설명력이 다소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결과에 의하면 모든 독립변수는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자아개념 변수 중 사회자아개념( $t=-8.31, p<.01$ )과 신체자아개념( $t=-6.66, p<.01$ )은 학업성취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자아개념( $t=4.17, p<.01$ )과 학업자아개념( $t=21.00, p<.01$ )은 학업성취에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자아개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높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업성취가 13.08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4> 중학교 3학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회귀계수	t값
학업성취	(상수)	-6.75		
	성별	13.08	.12	9.71**
	사회	-9.23	-.11	-8.31**
	가족	3.78	.05	4.17**
	신체	-5.92	-.09	-6.66**
	학업	20.40	.29	21.00**

\* $p<.05$  \*\* $p<.01$

#### 다. 고등학교 3학년

자아개념 하위요소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는데, 사회자아개념과 가족자아개념 간에서  $r=.344(p<.001)$ , 신체자아개념과는  $r=.343(p<.001)$ , 학업자아개념과는  $r=.325(p<.001)$ 의 상관이 있고, 가족자아개념과 신체자아개념 간에는  $r=.321(p<.001)$ , 학업자아개념과는  $r=.349(p<.001)$ 의 상관이 있으며, 신체자아개념과 학업자아개념 간에는  $r=.419(p<.001)$ 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학업성취를 종속변수로 하고 자아개념과 더미코딩을 한 성별변수(남학생=1, 여학생=0)를 독립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모형의 수정된 결정계수( $R^2$ )의 설명력은 8% 전후를 나타내고 있어 모형의 설명력이 다소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결과에 의하면 성별과 자아개념 중 사회자아개념과 학업자아개념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자아개념 변수 중 사회자아개념( $t=-8.16, p<.01$ )은 학업성취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자아개념( $t=14.76, p<.01$ )은 학업성취에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자아개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높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업성취가 1.75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5> 중학교 3학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수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회귀계수	t값
학업성취	(상수)	-0.92		
	성별	1.75	.05	3.15**
	사회	-3.93	-0.14	-8.16**
	가족	0.35	0.01	0.89
	신체	0.37	0.01	0.93
	학업	6.48	0.27	14.76**

\* $p < .05$  \*\* $p < .01$

##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자아개념과 자아개념 하위요인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와 학년별·성별 자아개념 하위요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자아개념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 결과에 비추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결과, 자아개념은 중학교 1학년은 4개요인 26개 문항(사회자아 7문항, 가족자아 9문항, 신체자아 5문항, 학업자아 5문항), 중학교 3학년은 4개요인 19개 문항(사회자아 5문항, 가족자아 5문항, 신체자아 4문항, 학업자아 5문항), 고등학교 3학년은 4개요인 18개 문항(사회자아 5문항, 가족자아 5문항, 신체자아 3문항, 학업자아 5문항)으로 하여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였다.

둘째, 자아개념은 중1·중3·고3 모든 단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떤 연령에서도 일반적인 자아개념에 성차가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Wylie(1979)의 연구와 다른 결과였다.

셋째, 자아개념 하위요인이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보았는데, 가족자아개념은 중1·중3·고3 모든 단계에서 성별 차이가 없고, 신체자아개념은 중1·중3·고3 모든 단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아개념은 중학교(1·3학년) 단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나 고등학교 3학년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학업자아개념은 중학교 1학년에서는 남학생이 높았으나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자아개념이 모든 단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최선영과 류영숙(1998)에서 재인용된 Dusk와 Flaherty(1981)의 연구결과 그리고 이경화와 고진영(2003)의 연구와 일치했다. 여학생의 신체자아개념이 낮은 것은 발달 단계상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일수도 있으나 학교나 가정에서 여학생들이 자신의 신체적 변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넷째, 학년별 자아개념 하위요소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학업자아개념은 중1·중3·고3 모든 단계에서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아개념은 중1·중3·고3 모든 단계에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자아개념은 중3에서는 정적영향을

중1·고3은 영향이 없었으며, 신체자아개념은 중1·중3에서는 부적영향을 고3에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정적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송인섭(2000) 등의 대부분의 연구에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사회자아개념이 중1·중3·고3 모든 단계에서 학업성취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나치게 친구관계를 중시하게 되면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다섯째, 성별에 따라 자아개념 하위 요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남녀 모두 사회적 자아개념은 중1·중3·고3 모든 단계에서 부적영향을, 학업자아개념은 중1·중3·고3 모든 단계에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자아개념은 남녀 모두 중1·중3에서 부적영향을 미치나 고3에서는 영향이 없었으며, 가족자아개념은 남녀 모두 중3에서만 정적영향을 미치고 중1·고1에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개념 하위요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교육개발원의 자아개념 검사 도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검사 도구 척도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항반응이론과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측정의 편파(bias)와 같은 연구가 추가로 실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성취에 대한 남녀의 자아개념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잠재변

수와 측정변수를 통해 매개·조절효과를 알아볼 수 있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종단자료의 특징을 살려 남녀학생들의 잠재능력 변화 추이와 학업성취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 참고문헌

- 김경식·이현철, 2006, “학교만족도에 대한 학급풍토의 영향”, 제2회 한국교육중단연구 학술대회(서울, 9월 28일).
- 김순혜, 1997, “고등학생의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 성향의 하위요인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연구”, 『교육심리연구』 11(2), pp. 21-44.
- 김종백·김준엽, 2006, “학업자아개념과 수업이해를 매개로 한 부모의 교육기대, 학업관리, 시험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종단적 분석”, 제2회 한국교육중단연구 학술대회(서울, 9월 28일).
- 김현옥, 2012, “부모의 정서적 교육지원과 학업자아개념의 자기회귀 교차지연효과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3), pp. 91-112.
- 박종효, 2006,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이해: 자아개념과 대인관계의 관련성”, 제1회 한국교육중단연구 학술대회(서울, 9월 28일).
- 손진희·김안국, 2006, “가정환경, 자아개념, 자기학습량과 학업성취의 구조적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7(1), pp. 235-265.
- 송인섭, 1988,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서울: 학지사.
- \_\_\_\_\_, 2000, “자아개념 위계구조의 재조명”, 『교육심리연구』 14(4), pp. 73-103.
- \_\_\_\_\_, 2001, “자아개념의 다원성과 학업성취간 관계”, 『사회교육과학연구』 5(1), pp. 3-17.
- 송수지·김정민·남궁지영, 2012, “청소년 동아리활동경험이 자아개념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3(1), pp. 121-147.
- 신은영·김누리, 2004, “청소년기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성숙도간의 관계 탐색”, 『아동교육』 13(2), pp. 185-199.
- 신종호·진성조·조은별, 2012, “지각된 부모의 양육특성이 물질적, 사회적 목표를 매개로 학업자기개념 및 입시부담감에 미치는 영향”, 제6회 한국교육중단연구 학술대회(서울, 11월 27일).
- 신효정·최현주, 2012,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이용한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진로관련 변인들의 영향요인 분석”, 제6회 한국교육중단연구 학술대회(서울, 11월 27일).
- 심완익·김효남, 2013, “초등학교 과학에서 인지적, 정의적 학업성취와 자아개념과의 관계”, 『한국초등교육』 24(1), pp. 43-61.
- 안도희·김유리, 2014, “청소년들의 자기주도학습, 관계성,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 간의 관계” 『교육학연구』 52(1), pp. 1-25.
- 이건인·이해춘, 2008, 『교육심리학』. 서울: 학지사.
- 이경화·고진영, 2003, “학령기 아동의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연구”, 『영재와 영재교육』 2(2), pp. 29-47.
- 이명숙·이규민, 2009, “전문계 고등학생의 학업성취, 자아개념, 학교적응

- 및 학교부적응행동 간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0(1), pp. 169-193.
- 이명애, 2006, “자아개념이 대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탐색”, 『교육평가연구』 19(1), pp. 161-181.
- 이성진·임진영·여태철·김동일·신중호·김동민·김민성·이윤주, 2009, 『교육심리학서설』, 서울: 교육과학사.
- 이정숙·이선영, 2013, “정신장애인의 회복 측정도구 개발”,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1(12) pp. 639-647.
- 이진화·전경숙, 1995, “연령, 성별, 사회계층적지위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부모의 책임지각”, 『대한가정학회지』 33(6), pp. 225-244.
- 이현주·권희경·신태섭, 2012, “또래관계와 자아개념 변화가 생애목표인식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 제6회 한국교육중단연구 학술대회(서울, 11월 27일).
- 최관수, 1989, “중고생의 자아개념 특성 및 자아개념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보가·전귀연, 1993,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2), pp. 41-54.
- 최선영·류영숙, 1998, “자아개념의 특성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분석”, 『교육연구논집』 6, pp. 1-9.
- 한국교육개발원, 2005, 『한국교육중단연구 2005(10) 예비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2006, 『한국교육중단연구 2005(RR 2006-22)』,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현주·김양분·박현정·류한구, 2005, 『KEDI 종합검사 도구 개발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홍성훈·김희수, 2007,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관한 연구: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8(3), pp. 193-216.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 19(1), pp. 161-177.
- 홍세희·박언하·홍혜영, 2006,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자아개념 변화 추정 :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의 부모효과와 또래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7(2), pp. 241-263.

## References

- Afshartous, D, and R. A. Preston. 2011. "Key Results of Interaction Models With Centering." *Journal of Statistics Education* 19 (3): 1-24.
- Bloom, B. S. 1976. *Human Characteristics and School Learning*. New York: MacGraw-Hill Book Co.
- Brookerover, W. B., A. Paterson and S. Thomas. 1964. Self-Concept of Ability and School Achievement. *Sociology of Education* 37 (3): 271-278.
- Bryne, B. M. and D. A. Worth Gavin. 1996. The Shavelson model revisited: Testing for the Structure of Academic Self-concept across Pre-, Early, and Late Adolesc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8(2), 215-228.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 of self-esteem*. San Francisco, CA: Freeman.
- DeCarlo, L. T. 1997. On the Meaning and Use of kurtosis. *Psychological Methods* 2(3), 292-307.
- Einar M. Skalvik. 1997. Issues in research on self-concept. *Advances in Motivation and Achievement* 10, 51-97.
- Hansford, B. C. and J. A. Hattie. 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and Achievement/Performance Measur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2(1), 123-142.
- Henson, R. K, and J. K. Roberts. 2006. Use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Published Research: Common Errors and Some Comment on Improved Practic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6(3), 393-416.
- Horn, J. L. 1965. A Rational and Test for the Number of Factors in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0(2), 179-185.
- Hu, L.-T. and P. M. Bentler.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ic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Marsh, H. W. 1986. Age and Sex Effects in Multiple Dimensions of Self-concept: Preadolescence to Early-adulthood.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3), 417-430.
- Piers, E. V. and D. B. Harris. 1969. *The Piers-Harris Children's Self-concept Scale*. Nashville, TN: Counselor Recordings and Tests.
- Reddon, J. R. 1985. MAPF and MAPS: subroutines for the number of principal components.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9, 97.
- Shavelson, R. J. and R. Bolus. 1982. Self Concept: The Interplay of Theory and Methods.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74(1),

3-17.

- Shavelson, R. J., J. J. Hubner., & G. C. Staton. 1976. Validation of Construction interpreta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6(3), 407-441.
- Song, I. S. and J. Hattie. 1985.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Achievement.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4), 365-372.
- Velicer, W. F. 1991. Determining the Number of Components from the Matrix of Partial Correlations. *Psychometrika* 41(3), 321-327.
- Wylie, R. C. 1979. *The Self-Concept: Theory and Research on Selected Topics*.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if a state is specified in the publisher's name there is no need to note it in the place of publication}

## 국문참고문헌의 영어표기

### (Korean References in Roman Alphabet)

- Ahn, Do-hee and Kim, Yoo-ree.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Relatedness,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Korean Adolescents." *Kore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52(1): 1-25.
- Choi, Bo-ga and Jeon Gwee-yeon. 1993. "Research: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elf-Esteem Inventor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1(2): 41-54.
- Choi, Kwan-soo. 1989. "Relationship among Adolescents' Self Characteristics, Self-concept, and Achievement." Master Degree.
- Choi, Sun-young and Ryu, Young-sook. 1998.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6: 1-9.
- Hong, Se-hee, Park, Un-ha and Hong, Hye-young. 2006. "Estimating Adolescents' Changes in Self-Concept: Tests of the Effects of Parents and Peers on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Changes." *Studies on Korean Youth* 17(2): 241-263.
- Hong, Se-hee.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s."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1): 161-177.
- Hong, Sung-hun and Kim Hee-soo. 2007. "The Study on Adolescents' Misdemeanor Behavior: Mediation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 *Studies on Korean Youth* 18(3): 193-216.
- Hyun joo, Kim, Yang-bun, Park, Hyun-jeong and Ryu, Han-goo. 2005. "KEDI Instrument Development." Seoul: KEDI.
- KEDI. Korean Longitudinal Study 2005(RR 2006-22). Seoul, KEDI.
- KEDI. Korean Longitudinal Study 2005. Seoul, KEDI.
- Kim, Hyn-wook. 2012. "Test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between Academic Self Concept and Parent's Emotional Involvement."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2(3): 91-112.
- Kim, Jong-back and Kim, Jun-hyep. 2008. "The Effect of Parents' Educational Expectation on Academic Management, Exam Stress via Academic Self-Concept and Understanding Class."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533-550.
- Kim, kyoung-sik and Lee, Hyun-chul. 2008. "The Effects of Class Climate on School Satisfaction."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627-640.
- Kim, Sun-hye, 1997. "The Relationships

- between Self-Concept and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and School Achievement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1(2): 21-44.
- Lee, Hyun-joo, Kwon, Hee-kyoung and Shin, Tae-sup. 2012. “The Effect of Peer Relationship on Life-time target and Career Satisfaction.”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825–849.
- Lee, Jeong-sook and Lee Sun-young. 2013. “The Development of a Mental Disorder Recovery Scale.” *Journal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11(12): 639–647.
- Lee, Jin-hwa and Jean, Kyeong-sook. 1995. “Research: Perceived Competence of Children and Perception of Responsibilities of Parents Based on Age, Sex, Sociometric Statu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3(6): 225-244.
- Lee, Kun-in and Lee, Hye-chun. 2008. “Educational Psychology.” Seoul, Hakjisa.
- Lee, Kyung-hwa.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School-Age Children.” *Gifted Children and Education* 2(2): 29-47.
- Lee, Myoung-suk and Lee, Kyu-min. 2009. “A Study on Academic Achievement, Self-concept, School-related Adjustment, and School Maladjustment Behavior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Social Science Studies* 40(1): 169-193.
- Lee, Myung-ae. 2006. “The Study of the Effect of Self-concept on Academic Achievement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19(1): 161-181.
- Lee, Sung-jin, Lim, Jin-young, Ye, tae-chul, Kim, Dong-il, Shin, Jong-ho, Kim, Min-sung and Lee, Yun-joo. 2009. “Educational Psychology.” Seoul: Educational Science.
- Park, Jong-hyo. 2006. “Understanding School Violence.” *Korean Educational Study*, 213-232.
- Shin, Eun-young and Kim, Noo-ree. 2004. “Research of Relation to the Middle School Student’s Self-concept and Career Maturity in the Adolescent Period.”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13(2): 185-199.
- Shin, Hyo-jeong and Choi, Hyun-joo. 2012. “The Effect of Career Related Variables on Self-Concept and Self-Efficacy using Latent Class Analysis.”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669-700.
- Shin, Jong-ho, Jin, Sung-jo and Joo, Eun-byul. 2012. “The Effect of Recognized Parents’ Nurturing Styles on Academic Self-Concept on College Entrance Exams via Physical and Social Targets.”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529-555.

- Sim, Wang-ik and Kim, Hyo-nam.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Affective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concept in Elementary School Scienc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4(1): 43-61.
- Son, Jin-hee and Kim, Ahn-kook.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Home Environment, Self-concept, Studying Time, and Academic Achievement."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7(1): 235-265.
- Song, In-sup. 1988. "Exploration of Human Self-Concept." Seoul, Hakjisa.
- . 2000. "The Higher Order Structure of Self-Concep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4(4): 73-103.
- . 2001. "The Relationships between Multifaceted Nature of Self-Concept and Achievement." *Social Science Studies* 5(1): 3-17.
- Song, Su-ji, Kim, Jung-min and Namkung, Ji-young. 2012. "The Effect of Adolescents' Experience of Club Activities on Their Self-Concept." *Studies on Korean Youth* 23(1): 121-147.